

“주담대 증가세 감소 여신심사기준 안착”

〈주택담보대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지난 2월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열린 정례 기자沟회에서 “최근 은행권 주담대 동향을 보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 신규 주담대 증가율(속보치)는 2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 2000억원 대비 30.9% 감소했다.

비교대상 기간을 늘려도 감소세는 유지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 월간 주담대 증가는 11조 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2014년 12월 ~ 2015년 2월) 13조 1000억원에 비해 9.1% 줄었다.

임 위원장은 “법리적인 판단을 위해 3개 월치 주담대 동향을 파악해도 증가세가 문화되는 추세”라며 “현재 은행 친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3개월 동향 살펴봐도 연착륙 모습 ISA 불완전 판매와 은행 자사 예·적금 편입은 무관용”

발생하는 불편이나 민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간 수도권에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대출은 올해 1~2월 승인금 액이 12조 1000억원으로 공급 규모를 유지했다”며 “중도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27.2%에서 올해 2월 3.20%로 소폭 올랐지만 이는 기준금리로 쓰이는 신규 코픽스 금리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은행의 자사 예·적금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장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달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ISA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오늘 ISA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며 “불완전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불시점검, 미스테리 쇼핑 등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만약 관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ISA 계좌에 자사 예·적금을 편입시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알린다”며 “수익률 측면이나 과거 퇴직연금 관련 사례 등을 따져 봄에 ISA 계좌에 자사 예·적금을 넣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었다.

금융위는 최근 2단계 금융개혁안을 발표하며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수익성(ROA)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라며 “지나치게 안정된 기업만을 상장시키고 혁신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자본시장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 있는 민족 재무구조 중심의 획일적인 상장 제도에 다양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중동 국부펀드로의 매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은행이 다양한 IR(기업설명회)을 진행하고 있고 매각의사를 타진하는 매수 희망자도 존재한다”며 “과점 주주 매각 방식과 함께 경영권 일괄 매각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매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KT, 올해 사물인터넷 서비스 30종 출시

기아 아이오티 홈 설명회에서 ‘건강’ ‘안전’ ‘편리함’ 전략 설명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GIGA IoT 홈’ 기자설명회에서 프로골퍼 김혜윤(왼쪽), 트레이너 손리(기운데)와 모델이 골프파팅, 헬스밴드, 헬스바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홈 Io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날 행사에서 효율적인 실내 자전거 운동을 돋는 ‘GIGA IoT 헬스바이크’와 골프 프로그램 ‘GIGA IoT 헬스 골프파팅’ 서비스를 선보였다. GIGA IoT 헬스 골프파팅의 경우 실제 골프장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퍼팅 연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KT는 IoT 플랫폼 IoT 메이커스(Makers)에 건강 관련 빅데이터 솔루션을 텁제한 후 고객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앱 ‘GIGA IoT 헬스’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다.

이밖에 KT는 자사의 개방형 IoT 플랫폼 IoT 메이커스에 KT 기술을 개방해 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플랫폼을 외부에 공유함으로써 KT만의 IoT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전략이다. KT는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인 ‘ARTIK’과 IoT 메이커스 연동을 마쳤다.

국내 최대 규모의 IoT 연합체 ‘GIGA IoT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사업자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292개 회원사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크라우드 펀딩도 5월부터 모바일로

이르면 5월부터 모바일로도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진다.

또 크라우드 펀딩 자금 조달기업 중 실적 우수기업은 코넥스 상장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 펀딩 안정적 정착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모바일을 통해 회원가입, 기업 조회 정도만 할 수 있었다. 청약은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빠르면 5월 초까지 모바일 서비스에 청약증거금 이제 기능을 추가해 모바일만으로도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PC를 사용해 어떤 청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 편의성이 떨어졌다”며 “앞으로 모바일 청약 증거금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증권계좌 개설도 한결 쉬워진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청약 완료 후 발행된 증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증권 계좌가 필요하다. 현재는 증권사나 증권사 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인진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쓰리엠 골드바 판매계약 체결

저축은행중앙회는 골드바 판매업체인 한국금거래소 쓰리엠과 골드바 판매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드비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된다.

참여 저축은행은 모두 24곳으로 ▲공평 ▲금화 ▲대명 ▲대백 ▲대안 ▲대한 ▲드림 ▲모아 ▲삼호 ▲스마트 ▲아산 ▲아주 ▲웅창 ▲조은 ▲JT 친애 ▲진주 ▲청주 ▲광택 ▲하나 ▲한국투자 ▲현대 ▲BNK ▲BK ▲TS 등이다.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비는 4종류(1kg 100g 37.5g 10g)다. 중앙회는 375g, 500g 2종류의 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중央회 관계자는 “한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부대수익 확보 및 거래고객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는 한국금거래소 쓰리엠과 함께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골드바 1kg을 구입한 고객에게 실버바 100g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한국지엠, 2월 내수판매 총 11,417대 판매

한국지엠주식회사가 2월 한 달 동안 총 44,610대(완성차 기준 내수 11,417대, 수출 33,193대)를 판매해 지난해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2월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쉐보레 더 네스트 스파크(THE NEXT SPARK)가 뛰어난 상품성으로 고객의 큰 호응을 받으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쉐보레 스파크는 지난 한 달 간 5,852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6.5%가 증가했다.

스파크는 세련된 디자인과 경차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 사양 등 우월한 상품성을 갖춰 고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번 경차는 처음이니까, 더 네스트 스파크’로 새 슬로건을 확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스파크판의 제품 경쟁력을 알리고 있다.

〈군신=문정곤 기자〉

우체국 간편결제 ‘우체국페이’ 등장

우체국이 간편결제 서비스 ‘우체국페이(PostPay)’를 도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특화서비스인 경조금 배달을 펀테크와 접목한 간편송금·간편결제 서비스 우체국페이를 3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우체국페이는 공인인증서 없이 기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주소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편리하게 경조금을 보낼 수 있다. 경조금을 원하는 날짜에 보내는 예약 기능, 전국 우체국에서의 현금교환도 특징이다.

정부 기업인 우체국 금융은 접포의 약 50% 이상이 음·면 등 농어촌에 위치해 노년층까지 간편결제 고객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달 현재 우체국스마트뱅킹에 기입한 농어촌 기업자는 33만명 선이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페이를 통해 우체국예금의 보편적 서비스 역할을 높이고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구독신청 288-9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